

현대슬라브어 등위 접속사 a의 기능 연구

정 정 원

(연세대학교 강사)

◆ 국문초록

지역어와 국어를 막론하고 모든 현대슬라브어에는 등위 접속사 a가 존재하고, 이것은 대조, 도입, 역접, 연결, 연속, 이접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슬라브어 접속사 a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은 대상, 특징, 사건들의 내적 관련성의 유무에 관계없이 서로 다른 것을 병치하는 대조 기능이라 할 수 있으며, 모든 슬라브어에서 a는 대조를 표현한다. 또한 대부분의 슬라브어 접속사 a는 선행 발화나 선행 맥락 없이 새 발화를 등장시키는 도입 기능, 그리고 서로 인접하는 것이 비일상적인 두 명제를 연결하는 역접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는 각각 사고와 발화라는 서로 다른 영역을 연결하고, 내적 인과관계의 단절에 대한 전제 없이 두 명제를 병치시킨다는 측면에서 대조 기능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이 외에도 서슬라브어에서는 접속사 a가 연결과 연속 관계를 표현하고, 남슬라브어에서는 독립적인 것들 사이의 선택에 기반한 이접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여러 슬라브어에서 접속사 a는 매우 다양한 기능으로 널리 사용되고, 러시아어학계에서 흔히 매우 러시아어적인 접속사라 간주되는 접속사 a는 러시아어를 넘어 매우 슬라브어적인 접속사라 할 수 있으며, 그 기능적 변별성 및 다양성과 그 기능들 사이의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슬라브어, 등위 접속사, a, 대조, 역접, 연결, 연속, 이접, 도입

1. 들어가는 말: 러시아어 접속사 a의 특수성에 대한 재고

접속사는 구체적 지시 의미 없이 단어, 구, 문장 간의 관계를 나타내고, 특히 순접, 역접, 이접 등을 표현하는 등위접속사는 다른 언어에서

상응되는 표현을 발견하기가 비교적 용이하게 때문에, 그 고유한 기능이 보편적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러시아 언어학자들은 러시아어 등위 접속사 a의 특수성에 주목하며, 접속사 a가 다른 언어에 정확한 상응어가 없는 매우 러시아어적인 접속사라고 본다 (Крейдли́н & Па́дучева 1974a, Па́дучева 1997, Урысо́н 2004).

이러한 비상응성은 일차적으로 러시아어 접속사 a를 다른 언어로 번역할 때 드러난다. 예를 들어, 러시아어 등위 접속사를 영어로 번역할 때, и가 and, но가 but, или가 or로 일관적 대응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러시아어 접속사 a는 언뜻 반의적으로 보이는 두 등위 접속사 and와 but로 모두 번역가능하다.

- (1) a. 러. Я пойду, a ты останься здесь.
b. 영. I shall go and you stay here. (Крейдли́н & Па́дучева 1974a:32)
- (2) a. 러. На дворе снег, a он босиком и шапки на голове нет!
b. 영. It's snowing outside, but he's barefoot and there's no hat on his head! (Yokoyama 1981:437)

하지만 러시아학자들이 단순히 이러한 특성 때문에 러시아어 등위 접속사 a의 특수성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비록 (1a)와 (2a)가 러시아어 등위 접속사 a가 가진, 폭넓은 의미 스펙트럼의 다기능성을 드러낸다 해도, 이러한 다기능성이 러시아어 접속사 a만의 특징은 아니기 때문이다. 즉, (1a)의 접속사 a는 서로 상이한 것들에 대해 기술하는 대조(contrast), (2a)의 접속사 a는 인과관계의 단절에서 비롯되는 기대 부정(denial of expectation)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영어 접속사 but도 이 두 가지 기능에서 특징적이다. 예를 들어, (3a)의 but은 대조의 기능, (3b)의 but은 기대 부정의 기능을 수행한다.

- (3) a. Susan is tall but Mary is short.
- b. John is a Republican but he's honest.

(Blakemore 1989:15)

이렇게 다른 언어 및 다른 접속사에게서도 발견되는 다기능성 이외에 러시아어 a는 좀 더 본질적인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우선 러시아어 대조의 접속사 a는 그 사용 영역이 좀 더 넓다. 즉, 영어 문장 (3a)의 대조의 but이 연결되는 성분들 간의 반의성을 필요로 하는 것과 달리, 러시아어 대조의 a는 의미적으로 반대적인 것을 강조하며 대립(contradiction) 관계를 드러내는 데에 국한되지 않고, 조금이라도 차이점을 가진 모든 것을 병치(juxtaposition)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3a)를 러시아어로 번역한 (4a)뿐 아니라, 문장성분들의 통사적 위치만 서로 바꾼 두 단문을 연결한 (4b), 아주 미세한 뉘앙스 차이가 있지만 지시 의미는 거의 동일한 유의어들을 병치한 (4c)와 같은 문장들 또한 접속사 a로 연결 가능하다¹⁾.

- (4) a. 러. Сузан высокая, а Мари невысокая. (수잔은 키가 크지만, 메리는 키가 작다.)
- b. 러. Я слушаю тебя, а ты меня. (나는 네 얘기를 듣고, 너는 내 얘기를 듣는다.) (Крейдлин & Падучева 1974b:34)
- c. 러. Коля рыжий, а Петя рыжеватый. (콜라는 붉은 머리이고, 페타는 불그스름한 머리다)(Санников 1989:173)

다른 한편, 기대 부정의 러시아어 접속사 a 또한 다른 역접 접속사와 구별되는 자신만의 변별성을 갖는데, 러시아어 a는 사건 외적 관점에서, 시간적으로 인접하거나 인지적으로 공존하는 것이 의외인 독립적 사건

1) (4b), (4c)를 영어로 번역한다면, (1b)와 마찬가지로 but 보다는 and로 연결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즉, (1)과 같이 서로 다른 기능일 때일 뿐 아니라, 대조 기능만 놓고 보았을 때에도 러시아어 a는 영어 but과 and 모두에 상응한다.

들이나 특징들의 병립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예를 들어 기대 부정을 표현하는 또 다른 러시아어 접속사 *но*로 연결된 (5a)는 ‘비가 오면 사람들은 우산을 가져간다 ($P \rightarrow Q$)’라는 특정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P (‘비가 온다’)와 $\sim Q$ (‘사람들은 우산을 가져간다’)라는 사건들 사이의 내적 선후관계 및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드러낸다. 반면, 접속사 *а*로 연결된 (5b)는 비가 오는 날이었지만, 콜라가 집을 나설 때는 비가 아직 또는 이미 내리지 않아서 우산을 들고 나가지 않은 것과 같이, 두 사건이 양립하는 것이 일상적이지 않은 것에 대한 놀라움을 드러내긴 해도, P 와 $\sim Q$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를 함축하지는 않는다. 이에 (5a)와 달리 (5b)에서는 보다 독립적인 두 사건을 지시하는 선행절 P 와 후행절 Q 의 위치를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

- (5) a. 러. День был дождливый, но Коля не взял зонт. (Санников 1986:436)
 b. 러. День был дождливый, а Коля не взял зонт. (비오는 날이었지만, 콜라는 우산을 가져가지 않았다)

이러한 직접적 인과관계의 부재와 더불어 러시아어 기대 부정의 접속사 *а*에서는 사건 외부에서 상이한 독립적 사건들을 관찰하는 화자의 관점이 개입되고, 그 예상치 못한 조합에 대한 화자의 놀라움이 반영된다. 즉 역접의 접속사는 본질적으로 주어진 명제들의 양립이 일상적이지 않다는 고정함축(*conventional implicature*)²⁾을 드러내지만, 역접의 러시아어 접속사 *а*는 그 고정함축이 화자 또는 관찰자에 의한 평가임을 암시하며, 그러한 함축을 좀 더 주관화하여 표현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러시아어 접속사 *а*가 자신만의 독특한 특징을 보유하고,

2) 영미언어학계에서는 그라이스(Grice 1975:44-45)가 접속사 *therefore*의 고정함축을 언급하며 접속사의 화용론적 함축 가능성을 환기시킨 후, 그와 다른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영어 접속사 *but* 또한 고정함축의 담화표지임이 지적되어 왔다(Mey 2001:24-25, Huang 2007:54-55).

특별한 화용론적 함축을 드러냄은 분명하지만, 이것이 러시아어만의 특성인지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다른 현대슬라브어에도 등위 접속사 a가 존재하고, 또 그것들이 러시아어 a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러시아어를 포함한 여러 슬라브어 등위 접속사 a의 여러 기능을 살펴보고, 이것이 각각의 슬라브어에서 어떤 공통적 특징과 변별적 특징을 드러내는지 분석하겠다. 원칙적으로 모든 슬라브어 국어(national language)와 지역어(regional language)의 접속사 a를 검토하지만³⁾, 보다 구체적인 기술은 본 연구자가 그 언어 데이터와 연구 자료에 접근하고 분석하는 것이 가능한 러시아어, 폴란드어, 체코어, 불가리아어, 세르비아-크로아티아-보스니아-몬테네그로어 (이하 세-크-보-몬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그밖에 나머지 슬라브어 자료와 그에 대한 분석은 해당 언어사전의 예문에 기반한다.

II. 슬라브어 접속사 a의 기능

1. 대조의 a

등위 접속사 a는 모든 개별 현대슬라브어 및 고대교회슬라브어에도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매우 기본적인 슬라브어 접속사이다. 이에 슬라브어 등위 접속사 a는 등위 접속사 i와 더불어 원슬라브어 시대부터 이어 온 가장 오래된 슬라브어 접속사로 추정된다 (Bednarczuk 1967:109-110; Cichońska 2015:185-186 재인용).

3) 동슬라브 지역어인 루신어(Rusyn)의 경우 접속사 a의 사용에 대한 정보 접근이 불가하여 연구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흔히 우크라이나어의 방언으로 간주되는 루신어 자료 중 인터넷에서 접근 가능한 것은 루신어-우크라이나어 사전에 제한되는데, 표제어 수가 많지 않은 이 사전에서 등위 접속사는 표제어로 따로 등록하고 있지 않다. 루신어의 등위 접속사가 우크라이나어 등위 접속사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슬라브어 등위 접속사 a의 여러 기능 중에서 서로 다른 대상과 그 상이한 특징을 병치하는 ‘대조(contrast)’는 (6)에서 보듯이 거의 모든 현대슬라브어 접속사 a에 존재하는 공통의 기능이다⁴⁾. 대조는 러시아어 등위 접속사 a의 여러 기능들을 관통하는 가장 기본적 기능(정정원·류진경 2018:96)일 뿐 아니라, 다른 동슬라브어 및 폴란드어, 불가리아어, 세-크-보-몬어 등에서도 접속사 a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변별적인 기능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체코어를 비롯한 그 밖의 다른 몇몇 슬라브어 접속사 a가 표현하는 대조는 그 빈도나 현저성에서 다소 주변적 기능이다. 따라서 모든 개별 현대슬라브어에서 대조가 등위 접속사 a의 가장 중심적이거나 일차적인 기능인 것은 아니지만, 모든 현대슬라브어 등위 접속사 a에 공통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개별 슬라브어로 분화되기 전 원슬라브어 혹은 공통슬라브어 a의 가장 변별적인 일차적 기능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여러 현대슬라브어 접속사 a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6) a. (=4a) 러. Сузан_{T1} высокая_{F1}, а Мари_{T2} невысокая_{F2}. (수잔은 키가 크지만, 메리는 키가 작다.)
 b. 벨. Брат_{T1} піша_{F1}, а сястра_{T2} чытае_{F2}. (BRС) (형제는 쓰고, 자매는 읽는다.)
 c. 우. Згода_{T1} дім будує_{F1}, а незгода_{T2} руйнує_{F2}. (СУМ) (의견 일치는 집을 짓고, 불일치는 무너뜨린다.)
 d. 폴. Ja_{T1} będę pracować_{F1}, a ty_{T2} śpij_{F2}. (Cichońska 2015:182) (나는 일할 테니, 너는 자라)
 e. 체. Jana_{T1} je ve škole_{F1} а Honza_{T2} leží nemocný v posteli_{F2}.

4) (6)의 예문은 동슬라브어, 서슬라브어, 남슬라브어의 순서로 배열했다. 즉, (6a-6c)의 러시아어, 벨라루스어, 우크라이나어는 동슬라브어, (6d-6i)의 폴란드어, 체코어, 슬로바키아어, 카슈비아어, 고소르비아어, 저소르비아어는 서슬라브어, (6j-6m)의 슬로베니아어, 세-크-보-몬어, 불가리아어, 마케도니아어는 남슬라브어이다. 서슬라브어의 경우 국어의 지위에 있는 언어부터 그렇지 않은 언어의 순으로 나열했다. 본 논문에 등장하는 다른 슬라브어 예문들도 모두 이 순서에 따라 배열된다.

(Přikrylová et als 2016:68) (야나는 학교에 있고, 혼자서 아파서 침대에 누워 있다.)

- f. 슬박. My_{T1} vyhlásíme zákon_{F1} a vy_{T2} sa snažte a nezaspíte_{F2}, Európa čaká! (SSSJ) (우리는 법안을 발표하니, 당신들은 노력하고 잠들지 마십시오. 유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 g. 카. Ten_{T1} spíwó_{F1} a nen_{T2} graje_{F2}. (CD) (이 사람은 노래 부르고, 저 사람은 연주한다)
- h. 고소. Jeho nan Franjo Broz_{T1} běše Chorwat_{F1} a jeho mać_{T2} Słowjenka_{F2}. (GPH) (그의 아버지 프란요 브로즈는 크로아티아인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슬로베니아인이었다.)
- i. 저소. Pśeto kuždy_{T1}, kenž pšosy, dostańo_{F1}, a chtož_{T2} pyta, namakajo_{F2}, a tomu_{T3}, kenž klapa, bužo wotwořone_{F3}.(GHD)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⁵⁾
- j. 슬벤. Sin_{T1} je šel z doma_{F1}, a hči_{T2} se je omožila v sosednjo vas_{F2}. (SSKJ) (아들은 집에서 나갔고, 딸은 이웃 마을에 시집갔다.)
- k. 세크보문. Zidovi_{T1} su bijeli_{F1} a vrata_{T2} su crna_{F2}. (Popović et al. 2019:961) (벽은 하얗고, 문은 검다.)
- l. 불. Планините_{T1} дишаха заплаха_{F1}, а небо и реката_{T2} обещаваха покой_{F2}. (PBE) (산은 위협을 내뿜고, 하늘과 강은 평화를 약속한다.)
- m. 마. Нис_{T1} седевме_{F1}, а тис_{T2} гледаа во нас_{F2}. (PMJ) (우리는 앉아 있었고, 그들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5) 사전(GHD)에서 저소르비아어 접속사 a는 대체로 폴란드어 연결 접속사 i로 번역된다. 따라서 그리스도교 신약성경 마태오복음 7장 8절(번역은 가톨릭 성경 참고)인 (6i)의 대조 용법은 접속사 a의 예스러운 용례일 수도 있다. 하지만 저소르비아어-고소르비아어 사전(GHD)에서는 (i)과 같은 구어체 예문도 등장하기 때문에, 현대 저소르비아어에서도 접속사 a의 대조 용법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i) 저소. Ø_{T1} Som student_{F1}. A ty_{T2}? (GHD) (나는 학생이야. 근데 너는?)

러시아어 대조의 a와 마찬가지로 슬라브어 대조의 접속사 a가 사용된 가장 전형적인 문장은 대조되는 요소들이 각 절에서 화제(topic)와 초점(focus)이 되어, T1F1 a T2F2의 구조(Крейдли́н & Па́дучева 1974a:34)를 형성한다. (6)의 여러 예문들이 표현하는 이러한 전형적인 슬라브어 대조의 접속사 a 구문에서는 첫 번째 대상 T1에 대한 첫 번째 기술 F1과 두 번째 대상 T2에 대한 두 번째 기술 F2가 병치되며, 첫 번째 대상과 두 번째 대상, 첫 번째 기술과 두 번째 기술의 내용은 서로 상이하다. F1과 F2가 정반대적 속성의 내용일 경우 반의성(antonymity)이라는 의미적 상관성을 가질 수도 있으나, 대조의 a로 연결된 첫 번째 절의 명제 P와 두 번째 절의 명제 Q는 시간적, 인과적으로 연관되지 않고, 서로 독립적이다. 예를 들어 (6a)의 высокая(키가 크다), невысокая(키가 크지 않다)는 반의관계이지만, 수잔이 키가 크면 메리가 키가 커야한다거나, 수잔이 키가 크면 메리가 키가 작아야한다거나 하는 두 명제 간의 내적 연관성은 없다.

러시아어 대조의 접속사 a 구문은 T1F1 a T2F2라는 정보 구조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주어진 정보 구조가 아닌 문장에서 대조의 a는 사용될 수 없다. 예를 들어, T1=T2로 두 화제가 동일해서 후행 절의 T2가 생략된 T1F1 a F2는 (7a)에서 보듯이 러시아어에서는 비문이 되고, 역접의 но나 연결의 и가 대조의 a를 대신하면 비문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때 (7a)의 F1과 F2는 T1의 특징으로 상호 연관되어 있어, 언어 단위들이 서로 독립적임을 드러내는 대조의 접속사 a로 연결될 수 없다. 같은 논리로 폴란드어 (7b), 불가리아어 (7c)에서도 접속사 a는 사용 불가능하다. 하지만 체코어 (7d)와 세-크-보-몬어 (7e)에서는 등위 접속사 a의 사용이 가능하다.

- (7) a. 러. Он_{T1} строгий_{F1} *a / но / и справедливый_{F2}.
 b. 폴. On jest surowy *a / ale / i sprawiedliwy.
 c. 불. Той е строг, *a / но / и справедлив.
 d. 체. On je přísný a / ale / i spravedlivý.

e. 세크보몬. On je strog ?a / ali / i pravedan.

(Mrazović 2009:421)(그는 엄격하지만, 공정하다.)

현대체코어의 경우에는 접속사 a의 가장 기본적 기능이 연결(copulative)이고, 공식적으로 대조는 그것과 관련된 부차적 기능이기 때문에, (7d)에서 체코어 접속사 a는 서로 다른 것을 병치하는 대조의 a라기 보다는, 러시아어, 불가리아어, 폴란드어 и, i처럼 서로 다르거나 유사한 특징을 이어주는 연결의 a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체코어 접속사 i는 후행하는 동위어구를 강조하는 연결 접속사로 기능할 수 있고⁶⁾, 두 특징 간의 반의성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역접의 ale를 사용한다.

세-크-보-몬어의 경우 러시아어나 폴란드어에 비해 대조 접속사 a와 역접 접속사 ali의 기능이 서로 많이 중첩된다⁷⁾. 외국인을 위한 세-크-보-몬어 문법서(Mrazović 2009:421)에 따르면, 문장 (8a), (8b) 모두에서 대조 접속사 a와 역접 접속사 ali가 가능하며, 이때 a는 좀 더 약한 대립관계, ali는 좀 더 강조된 대립관계를 표현하고, a와 달리 ali는 많은 경우 보충설명을 필요로 한다⁸⁾. 대조 접속사와 본질적 역접 접속사 간의 이러한 기능적 중첩이 없는 러시아어, 폴란드어에서 (8a)는 대조 접속사 a에 의해, (8b)는 각각 역접 접속사 ho와 ale로 표현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6) 체코어 연결 접속사 a와 i의 차이에 대해서는 4절에서 좀 더 살펴볼 것이다.

7) 하지만 (7e)의 접속사 a 자체는 매우 예외적인 용례로 보인다. 구글에서 정확한 표현 “strog ali pravedan”, “strog a pravedan”을 검색했을 때, 텍스트 4060개, 동영상 411개의 결과가 나와 매우 빈도가 높은 역접의 strog ali pravedan에 비해, strog a pravedan는 텍스트 24개, 동영상 단 3개로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검색일: 2022년 2월 9일, 유사한 항목 포함)

8) 그 보충설명이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즉 덧붙여진 특정 조건 하에서 ali에 의해 연결되는 두 명제 및 특징들 간에 내적 연관성이 있음을 명시하는 것이다.

(ii) 세크보몬. Ivo je visok, ali Petar je mali za košarku. (이보는 키가 크고, 페타르는 농구하기에는 작다) (Mrazović 2009:421)

(iii) 세크보몬. Marija je pametna ali lenja, pa neće uraditi tao posao. (마리아는 똑똑하지만 게으르다. 그래서 그 일을 못할 것이다.)

- (8) a. 세크보몬. Ivo je visok, a / ali Petar je mali. (이보는 키가 크고, 페타르는 작다) (Mrazović 2009:421)
 b. 세크보몬. Marija je pametna a / ali lenja. (마리아는 똑똑하지만 게으르다.)

한편, 내적 관계가 부재하는, 그저 서로 상이한 것을 병렬하는 ‘A가 아니라 B’라는 의미의 표현의 경우에는, 러시아어, 벨라루스어, 우크라이나어, 폴란드어, 불가리아어, 마케도니아어에서는 (9)에서 보듯이 등위 접속사 a로 그 대조를 표현한다.

- (9) a. 러. Пришёл не Петя, а Ваня. (페타가 아니라 바냐가 왔다.)
 b. 벨. Гэта здарылася не ноччу, а на світанні. (БРС) (이것은 밤이 아니라 새벽에 일어났다.)
 c. 우. Не питай старого, а бувалого. (СУМ) (나이든 사람이 아니라 경험 많은 사람에게 물어라.)
 d. 폴. Mleko migdałowe to nie mleko a napój migdałowy⁹⁾. (아몬드 우유는 우유가 아니라 아몬드 음료이다.)
 e. 불. От зло не благодт брани, а гняв, а мощ, а сила. (РБЕ) (악을 막는 것은 부드러움이 아니라, 분노, 권력, 힘이다.)
 f. 마. Не тага, а клетви во очите матни носи. (РМЈ) (불분명한 눈엔 슬픔이 아니라, 저주를 담고 있다.)

‘A가 아니라 B’에서 A와 B는 독립적 가치를 지니는 별개의 개체나 특징이기 때문에 대조의 접속사 a로 연결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주어진 구문은 (6)에서 예시로 든 기본적 대조 구문과 구별된다. ‘A가 아니라 B’에서 A의 부정이 전체부정처럼 보일 수 있지만,

9) “Mleko migdałowe - jakie ma właściwości odżywcze i dlaczego warto je pić?” (<https://centrumbio.pl/pl/n/Mleko-migdalowe-jakie-ma-wlasciwosci-odzywcze-i-dlaczego-warto-je-pic/2>)

B의 뒤이은 등장을 통해 그것이 부분부정임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A와 B가 화자의 인식 속에서 일정한 반의관계를 맺고 있고, T1F1 a T2F2 구조의 (6)의 독립적 문장들과 달리, A와 B의 순서가 고정되어 있기도 하다. 이러한 내적 연관성의 개입 때문에 일부 슬라브어에서는 주어진 개념을 대조의 a가 아닌 본질적 역접 접속사로 표현하기도 한다. 따라서 (10)-(12)에서 보듯이 폴란드어에서는 (9d)와 같은 대조적 a 와 더불어 (10)과 같은 역접 접속사 ale가 ‘A가 아니라 B’를 표현하기도 하며, 체코어와 세-크-보-몬어에서는 아예 대조적 a 대신에 각각 ale, nýbrž와 ali zato, nego가 사용된다.

- (10) 폴. Nie kupilem forda, ale oplá. (SJP) (나는 포드가 아니라 오펠을 샀다.)
- (11) 체. Nekoupím si román, ale // nýbrž učebnici. (Příruční mluvnice češtiny 1995:516) (나는 소설이 아니라 교재를 살 것이다.)
- (12) a. 세크보몬. Ona nije lepa, nego je atraktivna.
 b. 세크보몬. Ona nije lepa, ali je zato atraktivna. (Mrazović 2009:422) (그녀는 예쁜 것이 아니라, 매력적이다.)

2. 도입적 a

접속사는 둘 이상의 단어, 구, 절을 연결하는 품사이므로, 선행하는 절이 없는 상태에서 발화 가장 앞에 등위 접속사가 등장하는 것은 접속사의 존재 의미를 뒤흔드는 매우 예외적인 용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여러 현대슬라브어에서는 등위 접속사 a의 이러한 도입 접속사(introductory conjunction) 용법을 비교적 자주 만날 수 있다.

불가리아어 접속사에 대한 연구(Мичева 2013:22)에 따르면 발화 가장 첫 부분에 등장하는 도입적 불가리아어 접속사 a는 이 접속사 사용 전체에서 2/3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매우 흔하다. 다른 슬라브어에서 이것을 수치화한 연구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도입적 접속사 a의 잦은

사용이 불가리아어만의 특수성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장 도입부의 a는 개별 발화 또는 문장 자체에는 처음 등장한다 하더라도, 선행 맥락¹⁰⁾이나 (13)과 같은 선행 발화와의 대조, 역접 관계를 형성하며 어떤 맥락적 연계성을 가질 수도 있다.

- (13) 러. A: Мои родители голосуют за Лейбористскую партию.
 (우리 부모님은 노동당에 투표해.)
 B: A мои голосуют за Тори. (근데 우리 부모님은 토리당에 투표해) (정정원 · 류진경 2018:92-93)

하지만 슬라브어 도입적 접속사 a는 (14)의 여러 예에서도 보듯이¹¹⁾, 관련된 선행 문맥이나 선행 발화가 없는 상태에서 대화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14)의 예문 중 단일 문장이 아닌, 두 개 이상의 문장을 담은 예시에서 이것은 더 분명해진다. 예를 들어 (14a)에서는 선행 발화와 대조나 역접 등의 어떠한 구체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새로운 대화 주제를 도입하는 발화의 첫 부분에 접속사 a가 등장하고, (14b), (14h)의 경우 선행 발화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처음 대화의 포문을 열면서 등위 접속사 a를 사용하고 있다.

- (14) a. 벨.- Можa і правильна. A што будзеш рабіць?¹²⁾ (그 말이
 맞을 지도 몰라. 근데 너는 뭘 할 거야?)
 b. 우. Підійшов до їх сусіда, привітавсь та й каже:

10) 예를 들어 마지막 남은 피자를 다 먹어버린 친구에게 (iv)와 같이 접속사로 시작하는 문장을 발화할 수 있다.

(iv) But I told you to leave some for tomorrow. (Blakemore 2000:473)

11) 자료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비국어 서슬라브어 (카슈비아어, 고소르비아어, 저소르비아어)에서는 적절한 예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이러한 슬라브어에서도 도입부에 접속사 a가 사용될 것으로 추정된다.

12) 소설 텍스트: Адам Глѣбус(1993), *Хлопчыкі*, Мінск
<https://www.litmir.me/br/?b=598918&p=4>

- “A чи чули ви, що коло Чорного гаю розбої?” (СУМ)
(그는 그들의 이웃에게 다가가 인사를 하고 말했다. “근데 초르니 가이 근처에서 강도 맞았던 얘기 들었어요?”)
- c. 폴. A co robisz w domu? (근데 너 집에서 뭐하니?)
- d. 체. A co ted? (SSJČ) (근데 이제 뭐?)
- e. 슬박. A vy ste už prišli? (SSSJ) (근데 벌써 오셨어요?)
- f. 슬벤. A vrnimo se k stvari! (SSKJ) (그럼 물건들로 되돌아갑시다.)
- g. 세크보몬. A gdje si ti? (근데 너는 어디야?)
- h. 불. И это, тя се заглежда за минута през прозореца .. след това се навежда и. .. казва: — A какво стана Джапар, какво прави? (PBE) (그녀는 잠시 창밖을 응시하고, 몸을 숙이더니 말했다. “그런데 자파르는 어떻게 되었을까? 떨하고 있을까?”)
- i. 마. A, на крајот тоа можеби и не е така страшно. (PMJ)
(근데 결국 이것은 매우 무서운 것일 수 있다.)

(15)의 러시아어 대화에서도 A의 발화에서는 대화 가장 처음에 등위 접속사 a가 등장하고, B의 발화에서도 대화상대자의 첫 발화와 대조나 역접 관계에 있지 않은 내용이 등위 접속사 a로 대화상대자의 선행 발언과 연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도입적 접속사 a의 빈번한 사용은 현대 러시아어 구어체 발화의 매우 중요한 특징이다(Николаева 1997:12-13, Фужерон 1997:29-31).

- (15) 러. A: A Вы почему здесь стоите?
B: A женщина отошла и очередь мне свою уступила.
(A: 근데 왜 여기 서 계시죠? B: 근데 어떤 여자가 가면서 그분 자리를 저한테 양보했어요.)
(Николаева 1997:13)

통시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어두에 놓이던 슬라브어 감탄사 a가 문장 중간의 접속사 a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중간자적 도입 접속사 a가 생성된 것으로 추정되기도 하며 (Николаева 1997:7), 공시적 관점에서 몇몇 현대슬라브어에서는 도입 기능의 a를 접속사가 아닌 소사 (particle)나 감탄사로 분류하기도 한다. 또한 문장 중간에 오는 접속사와 달리 문두에 놓이기 때문에 화용론적 담화표지(discourse marker)로 따로 구별해야 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Fielder 2008).

명시적인 언어적 실체를 가진 선행 발화와 내용적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전통적인 의미의 접속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해서, 이러한 도입적 a에 접속사적 속성이 부재하는 것은 아니다. 사고 영역의 암시적 발화 또는 화자에게는 명시화되지 않은 청자의 잠재적 이전 발화에 실제 언어 영역의 명시적 발화를 병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14)의 여러 예문과 (15)의 A의 발화에 등장하는 접속사 a는 화자의 생각 속에서 계속되던 침묵적 내적 발화와 실제 음성으로 구현된 외적 발화를 병치하여, 예를 들어 (15)의 A의 발화는 ‘Здесь стояла другая женщина (여기에 다른 여자가 서 있었어).’라는 생각에 뒤이어 나올 수 있다. 또는 접속사 a는 화자가 그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청자들의 잠재적 선행 대화와 자신이 새롭게 시작하는 대화를 병치하는 역할을 하여, 집에 막 돌아온 화자가 친구와 전화로 이야기를 하던 가족 구성원에게 새로운 대화를 시작하면서, 그 가족 구성원의 선행 대화와 무관한 발화로 폴란드어 예문 (14c) A co robisz w domu? (근데 너 집에서 뭐하니?)를 덧붙일 수 있다.

(15)의 B의 발화에 등장하는, 선행하는 발화와 직접적인 내용적 연관성을 갖지 않는 도입적 a는 조금 특수한데, 이때 이 발화의 화자는 대화 상대방의 첫 발화에서 그가 자신이 새치기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함축을 이끌어내었고, ‘Вы можете думать, что я влез(ла) без очереди (제가 새치기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군요)’라는 음성적으로 구현되지 않은 숨겨진 발화 뒤에 대조의 a를 삽입한 후 실제적 발화를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도입적 a는 사고와 실제라는 상이한 발화 영역, 잠재 주제와 실제 주제, 기존 주제와 새로운 주제를 병치시키며 대조시킨다는 점에서 대조적 a의 기능적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정원·류진경 2018:93). 다른 등위 접속사와 달리 대조의 a는 순접이나 역접의 내적 연관성이 없는 서로 다른 발화를 연결할 수도 있다. 또한 대조의 접속사 a는 문장 또는 발화 내에 새로운 화제(T2)를 도입하는 역할을 하고, 그 새로운 화제(topic)는 좀 더 큰 단위인 텍스트 또는 담화 내의 새로운 주제(theme)로 발전할 수 있다¹³⁾. 이러한 이유들로 슬라브어에서는 무엇보다도 접속사 a가 도입 접속사로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¹⁴⁾.

폴란드어와 세-크-보-몬어에서는 본질적 역접 접속사 *ale*, *ali*도 문두에 사용될 수 있다. 이때 접속사 뒤에 나오는 발화는 선행하는 대화상대자의 발화와 인과적으로 상응하지 않거나 모순되는 내용일 수 있고, 폴란드어의 경우는 특별히 특정 선행 맥락이나 선행 발화에 대한 놀라움을 표현할 수도 있다. 즉 역접의 도입적 접속사에서도 원래 접속사가 가진 기능이 반영되는 것이다.

(16) 세크보몬. *Ali, moj dragi, niti u životu niti u lovu nije baš sve matematika.* (Barić 2005:462) (하지만, 인생에서든 사냥에서든 모든 것이 수학은 아니야.)

(17) 폴. *Ale pomówmy poważnie!* (SJP) (하지만 진지하게 말합시다.)

13) 적어도 러시아어에서는 발화들을 연결하는 순접 접속사 *u*, 역접 접속사 *no*가 주제를 유지시키는 것과 달리, 접속사 *a*로 도입된 새로운 화제는 그것을 담화 내에 새로운 주제로 발전시켜 나가는 속성이 있다 (정정원·류진경 2018:76-77, 88, 92). 다른 슬라브어 접속사 *a*도 좀 더 확장된 범위의 담화 안에서 이러한 속성을 드러내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만약 그렇다면 이런 이러한 담화적 속성도 도입적 슬라브어 접속사 *a*의 사용을 촉진시켰을 것이다.

14) 한국어 ‘그런데’가 도입적 접속부사로 사용되는 것도 이것이 접속사 *a*와 유사한 대조적 관계를 지시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 역접의 a

러시아어 역접의 a에 대해서는 서론의 러시아어 기대 부정의 a 예문 (5b=18a)에서 이미 살펴보았다¹⁵⁾. 즉, 러시아어 접속사 a의 경우, 연결 되는 두 명제 P와 Q의 병립이 혼치 않은 일임을 드러내나, 보다 본질적인 역접 접속사가 함축하는 ‘P이면 ~Q’라는 언중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관계를 상정하지는 않고, 그러한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사건 밖 화자 혹은 관찰자의 주관적 관점이 반영된다.

(18)에서 보듯이¹⁶⁾ 러시아어 이외에 많은 다른 현대슬라브어에서도 등위 접속사 a가 선후명제 P와 Q사이의 비상응성을 드러내는 역접 접속사로 기능할 수 있다.

- (18) a. (=5b) 러. День был дождливый, a Коля не взял зонт.
(비오는 날이었지만, 콜라는 우산을 가져가지 않았다)
- b. 우. Мавка, зачарована, тихо колишеться, усміхається, a в очах якась туга аж до сліз. (СУМ) (마브카는 기뻐하고 몸을 약간 흔들며 미소 짓지만, 그녀의 눈은 어떤 슬픔에 잠겨 눈물이 맺혀 있다.)
- c. 폴. Rzekał z uśmiechem, a był to uśmiech jadowity. (Bałk 2010:444) (그는 미소 지며 말했지만, 그것은 맹독성 미소였다.)
- d. 체. Snažil se dost, a úspěch neměl. (SSJČ) (그는 노력을 충분히 했지만, 성공은 하지 못했다.)
- e. 슬박. Také niečo som nečakal, a stalo sa to. (SSSJ) (난 그런

15) ‘역접(adversative)’은 흔히 대조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을 지시하는 용어라, 레이크오프(Lakoff 1971)가 처음 사용한 ‘기대 부정(denial of expectation)’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될 수 있지만 용어로 사용하기엔 다소 길고 복잡하며, 접속사 a와 같은 특수한 역접은 ‘의외 접속사(mirative conjunction)’로 명명하기도 하지만(Malchukov 2004) 널리 쓰는 용어가 아니어서, 본고에서는 대조를 제외한 협의의 개념으로 ‘역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겠다.

16) 벨라루스어, 고소르비아어, 저소르비아어의 역접 a의 예는 찾아내지 못했지만, 이 언어들에서도 a는 역접 등위 접속사로 사용될 것으로 추정된다.

- 것을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되어 버렸다.)
- f. 카. Nie wié, a gódó. (Stone 1993:783) (그는 알지 못하지만, 말한다.)
- g. 슬벤. Típal je po temni veži, a vrat ni našel. (SSSJ) (그는 어두운 홀을 더듬어갔는데, 문은 찾지 못했다.)
- h. 세크보몬. Učio sam cijeli dan a nista nisam naučio. (Popović et al. 2019:961) (난 하루 종일 공부했지만, 아무 것도 익히지 못했다.)
- i. 불. В четвъртък след обед излязох да прибера козата. Бях я вързал край реката в храсталците, a тя скъсала въжето и задула нагоре. (PBE) (목요일 점심식사 후 나는 나가서 염소를 끌었다. 내가 (그것을) 강가 관목에 묶어두었지만, 그것은 줄을 끊고 도망갔다.)
- j. 마. Децата ја молеа, a таа не ги слушаше. (PHJ) (아이들이 그녀에게 부탁했지만, 그녀는 그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이러한 슬라브어에는 no, ali, ale 등 ‘P→~Q’라는 사건들의 내적 인과관계에 기반한, 보다 본질적인 역접 접속사가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접속사 a의 역접 기능은 좀 더 부차적이다. 이때 슬라브어 a가 표현하는 부차적인 역접의 변별적 특징은 다른 슬라브어에서도 러시아어 a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P와 ~Q사이의 내적 인과관계의 부재와 외부 관찰자의 시점은 우크라이나어 예문 (18b), 폴란드어 예문 (18c), 슬로베니아어 예문 (18g)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나며, 보다 분명한 근거로 세크보몬어 접속사 a에 대한 학술연구에서 이러한 차이가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세크보몬어 예문 (19a)와 (19b)는 동일한 상황을 지시하지만, P와 ~Q, 즉 요반이 딸기를 좋아하는 것과 그가 같은 베리류인 라즈베리를 먹는 것 간에 특별한 내적 인과관계, 즉 ‘딸기를 좋아하면, 라즈베리도 좋아한다’를 상징하는 경우에는 (19b)와 같은 본질적 역접 접속사 ali를, 그러한 인과관계를 함축하지 않은 채 서로 다른 두 명제인

P와 Q를 병치하는 경우엔 일차적으로 대조를 지시하는 부차적 역접의 a를 사용하여 (19a)라고 말할 수 있다(Arsenijević 2011:201).

(19) a. 세크보몬. Jovan voli jagode, a ne jede maline.

b. 세크보몬. Jovan voli jagode, ali ne jede maline. (요반은 딸기는 좋아하지만, 라즈베리는 먹지 않는다.) (Arsenijević 2011:201)

슬라브어 접속사 a가 역접 접속사로 기능할 때 발현되는 이러한 변별적 특징은 강한 내적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서로 다른 독립적 명제들의 병치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 현대슬라브어 접속사 a의 공통 의미인 대조의 a와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접속사 a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대조보다는 연결인 현대체코어에서 역접 a는 a přece, a přesto, a zatím와 같이 역접을 명시하는 표현들과 결합된 형태로 보통 나타나고, 접속사 a가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예는 흔치 않다. 그리고 접속사 a가 독립적으로 역접을 표현할 때에도, 그 대조 기능이 역접 기능보다 우선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18d)의 후행절에서 목적어와 술어의 위치가 바뀐 úspěch neměl의 어순일 때에만 선행절의 ‘노력했다(snazil se)’와 후행절의 ‘성공(úspěch)’이 보다 분명하게 대조된다¹⁷⁾. (18d)의 후행절이 도치되지 않은 neměl úspěch였다면 체코어 접속사 a는 보다 무표적인 순접의 시간적 연속관계를 일차적으로 지시했을텐데, 어순의 도치를 통해 주요 사건들 간의 대조를 명확히 할 수 있게 되고, 선행절의 사건과 후행절의 사건이 갖는 반의적 관계에서 역접이라는 해석이 도출된 것이다. 즉, 공시적 관점에서 대조가 접속사 a의 중심의미가 아닌 체코어에서도 통시적으로 보다 기본적인 접속사 a의 대조에 기반하여 역접 기능이 파생된다.

17) 구글에서 주어진 구문을 검색했을 때, 보다 본질적인 역접 접속사인 ale의 경우 목적어와 술어가 도치된 “ale úspěch neměl” (텍스트 약 59개)보다 술어가 목적어에 선행하는 “ale neměl úspěch” 어순(텍스트 약 1018개)의 빈도가 훨씬 더 높다.(검색일: 2022년 2월 9일, 유사한 결과 포함)

한편, 명제 P와 ~Q 간의 내적관계를 상정하지 않는 슬라브어 접속사 a의 독특한 역접 기능이 접속사 a만의 전유물은 아니다. 불가리아어에서는 또 다른 접속사 ами, ама 등에 의해 표현될 수도 있는데, 이때 a는 문어체에서, ами, ама는 구어체에서 사용되는 형태이다 (Fielder 2008, Цонев 2013).

(20) 불. Уж щеше да дойдеш навреме ама пак закъсня.

(Цонев 2013) (너는 제 시간에 와야 했지만, 또 늦었다.)

4. 연결의 a

대부분의 현대슬라브어에서 접속사 a가 대조를 일차적 기능으로 삼아 광의의 역접 접속사에 포함되는 것과 달리, 체코어와 슬로바키아어 및 다른 대부분의 서슬라브어에서 접속사 a는 일차적으로 연결 관계 (poměr slučovací)를 표현하는 순접 접속사이다.

(21) a. 체. Otec a matka šli do kina. (Příruční mluvnice češtiny 1995:513) (아버지와 어머니는 극장에 갔다.)

b. 슬박. Sestra mi priniesla nejaký chlieb a kávu. (간호사는 나에게 어떤 빵과 커피를 가져다주었다.)¹⁸⁾

c. 고소. Nan a mać a dźeći tworja swójbu. (GPH) (아버지, 어머니와 아이들이 가족을 형성한다.)

d. 저소. Wóni jěže z nožom a widlickami. (GDP) (그들은 포크와 나이프로 먹는다.)

e. 카. Běľe brat a sostra. (Stone 1993:783) (그들은 형제와 자매였다.)

18) OpenTran (<https://sk.opentran.net/anglicky-slovensky-preklad/bread.html>)

(21)의 체코어, 슬로바키아어, 고소르비아어, 저소르비아어, 카슈비아어 예문들은 이들 언어에서 등위 접속사 a가 무엇보다도 순접 접속사의 기본 기능인, 특별한 가치평가나 함축 없이 서로 다른 단어, 구, 절을 단순히 나열하고 연결하는 접속사로 기능함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연결 접속사(copulative conjunction)는 서로 다른 것뿐 아니라 동일한 것을 병치하기도 하며, 서로 다른 것을 병치할 때에도 그것들의 차이를 부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조 접속사와 구별된다. 그러한 기능의 차이를 감안할 때, 좀 더 단순한 연결 기능이 좀 더 복잡한 대조 기능에서 파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연결 접속사의 기능이 좀 더 기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⁹⁾.

하지만 거의 모든 슬라브어 접속사 a가 대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반면, 연결 기능은 일부 서슬라브어 접속사 a에서만 주된 기능으로 작용하고, 현대체코어 사전과 달리 고대체코어 사전(ESSČ)의 접속사 a의 의미 기술에서는 대조, 역접 기능을 연결 기능보다 앞서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들 서슬라브어에서도 역사적으로는 대조의 a가 연결의 a에 선행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서슬라브어의 대조 접속사 a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연결 접속사로까지 의미역을 확장했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당할 것이다.

한편 다른 대부분의 슬라브어에서 연결 접속사나 강조 소사로 기능하는 i²⁰⁾는 체코어와 슬로바키아어에서 순수한 연결 접속사로 사용되지 않고, (22a), (22b)와 같이 주로 강조 연결 접속사로 특화되어서 주어진 상황에 대한 놀라움을 표현한다.

19) (1b)의 영어접속사 and의 대조 의미도 이것의 연결 기능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인다.

20) 연결 접속사가 in인 슬로베니아어를 제외한 모든 남슬라브어와 동슬라브어, 그리고 폴란드어에서 기본적인 연결 접속사는 i이다.

- (22) a. 체. Přišel tam Pavel, Václav i Petr. (Příruční mluvnice češtiny 1995:514) (거기에 파벨, 바츨라프 그리고 페트르까지 왔다.)
 b. 슬박. To ho štvalo, i radovala sa v duchu. (Short 1993b:572) (이것은 그를 언짢게 했는데, 그녀는 마음속으로 기뻐하기도 했다.)

이러한 체코어와 슬로바키아어의 중립적 연결 접속사 a와 강조적 연결 접속사 i가 함께 사용되었을 때 의미가 좀 더 특수한 지표적 연결 접속사 i는 강조 이외에 특별한 통사적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문장에서 접속사 a와 i가 공존할 때 a로 연결되는 단어들은 보다 동등하거나 좀 더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면, i 뒤의 등위어구(coordinate)는 의미적, 형태적으로 별도의 추가적인 것이 되는데, 이때 접속사 a와 i의 배치를 통해 여러 연결 관계의 위계를 구분할 수 있다(Short 1993a:502).

체코어 예문 (23a)에서는 (23b)에서 따로 표시한 바와 같이²¹⁾, 접속사 a는 두 개의 ‘추상명사(zeleň ‘초록을’, běl ‘하양을’)+ 복수생격 명사구(trávníků ‘잔디밭의’, stromů i keřů ‘나무들과 관목들의’)를 연결하고, 첫 번째 접속사 i는 구체명사(hacienda ‘농장을’)에 추상명사(zeleň ‘초록을’)를 덧붙인다. 마지막에 등장하는 등위어구들(stromů ‘나무들의’, keřů ‘관목들의’)은 보통 접속사 a로 연결되지만, (23a)에서는 i로 연결하면서 후자를 강조함과 동시에 복잡한 등위적 연결 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하게 한다.

- (23) a. 체. Slunce pozlacovalo bílou haciendu i zeleň trávníků a běl stromů i keřů. (Short 1993a:502) (햇볕이 흰 농장 그리고 잔디밭의 초록, 나무들과 관목들의 하양까지 금빛으로 물들였다.)
 b. Slunce pozlacovalo { bílou haciendu } i { [zeleň trávníků] a [běl {stromů} i {keřů}] }.

21) 예문 (23b), (24b)에서 접속사 a로 연결되는 등위어구는 []로, 접속사 i로 연결되는 등위어구는 { }로 표현하였다.

슬로바키아어 예문 (24a)에서는 (24b)에서 표시한 바와 같이, 관계대명사절에서 접속사 a로 연결되는 *biedu* ‘빈곤을’과 *vysťahovlectvo* ‘해외이민을’은 하나의 그룹이 되고, 접속사 i와 함께 추가로 덧붙여지는 *súčasnú hrozbu* ‘현재의 위협을’과 순차적으로 연결된다(Short 1993b:572).

- (24) a. 슬박. Český i zahraničný kapitál, ktorý nám priniesol biedu a vysťahovlectvo i súčasnú hrozbu. (Short 1993b:572) (우리에게 빈곤과 해외 이민 그리고 현재의 위협까지 가져다 준 체코 그리고 외국의 자본)
- b. {Český} i {zahraničný} kapitál, ktorý nám priniesol { [biedu] a [vysťahovlectvo] } i { súčasnú hrozbu }.

이러한 현재 상황으로 미루어 봤을 때, 체코어에서는 다른 대부분의 동슬라브어, 남슬라브어에서처럼 과거에는 중립적이었던 연결 접속사 i의 영역이 유표적인 강조적 연결 접속사로 축소되면서, 접속사 a가 접속사 i의 자리를 대신했고, 다른 몇몇 서슬라브어에서도 유사한 변화과정의 진행되었을 것이라 추정된다.

한편, 같은 서슬라브어인 폴란드어에서 가장 중립적인 연결 접속사는 동슬라브어, 남슬라브어와 마찬가지로 등위 접속사 i이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접속사 a가 연결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도 존재하는데, (25a)에서처럼 *między* ‘사이’라는 전치사 뒤에 열거되는 단어들은 반드시 접속사 a로 연결해야 하는, 표준적 규범에 합당한 용법과 (25b)와 같이 나이든 세대의 폴란드어 화자들이 연결 접속사 i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a를 사용하는 표준규범에 어긋나는 사회방언이 그것이다.

- (25) a. 폴. Wróć między drugą a trzecią. (SJP) (두 시와 세 시 사이에 돌아올게.)
- b. 폴. 2 a 2 jest cztery. (Cichońska 2015:185) (2 더하기 2는 4이다.)

c. 폴. Niemcy, Rosja a sprawa polska. (Roman Dmowski 1908)
(독일, 러시아 그리고 폴란드 문제)

(25c)는 1908년 발행된 책 제목인데, 주제들 사이의 상호연관성을 드러내기 위해 여기에서 연결 접속사 a를 사용했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Rothstein 1993:730-731). 하지만 2022년 현재 이 책은 접속사 a를 i로 대체한 제목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폴란드어 사전(SJP)에서도 유사한 용법은 현재는 i로 대체된 예스러운 용례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폴란드어 접속사 a가 등위어구들 간의 상호연관성을 표현한다는 주장이 현대폴란드어의 접속사 a를 적절하게 설명한다고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설명은 (25a), (25b)와 같이 현대폴란드어에 남아 있는 접속사 a의 예외적인 연결 기능의 존재 이유를 잘 설명한다.

위 체코어, 슬로바키아어 예문 (23a), (24a)에서도 또 다른 연결 접속사 i와 비교했을 때, 연결 접속사 a에서 두드러지는, 등위어구들 간의 강한 상호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슬라브어 공통의 대조의 a를 강한 상호관계를 드러내는 서슬라브어만의 연결 접속사 a로 전환한 의미적, 기능적 동력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폴란드와 인접한 우크라이나에서도 지역 방언에서는 (25a)와 동일한 접속사 a의 용법이 발견되는데, 이는 폴란드어의 영향인 것으로 추정된다. 우크라이나어 지역방언 예문 (26)에서 між라는 전치사 다음의 두 조격 표현 зеленими святами ‘초록 주간’과 святом Купайла ‘쿠팔라 축일’은 접속사 a로 연결되지만, зіллям ‘풀’과 ліками ‘약초들’은 전치사 i로 연결됨을 확인할 수 있다.

- (26) 우. Коли було настане час, між зеленими святами a святом Купайла, Захар Беркут.. іде на кілька неділь у гори за зіллям i ліками. (СУМ) (때가 됐을 때, 초록 주간과 쿠팔라 축일 사이에 자하르 베르쿠트는 풀과 약초들을 캐러 몇 주간 산에 간다.)

5. 연속의 a

순접 접속사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인 시간적 연속성과 인과관계 지시 또한 연결 접속사 a가 널리 통용되는, 폴란드어를 제외한 몇몇 서슬라브어에서 발견된다²²⁾. 연속 접속사(consecutive conjunction)는 일차적으로 시간적 선후관계를 드러내지만,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며 인과관계를 표현하는 원인 접속사(causal conjunction)로 발전하기도 한다²³⁾. (27)은 몇몇 서슬라브어에서 발견되는 연속 접속사 a의 예이다.

- (27) a. 체. Řekl, že se brzy vrátí, a odešel (SSJČ) (그는 빨리 돌아오겠다고 말하고 떠나갔다.)
- b. 슬박. Koncert sa začína v piatok a trvá do nedele (SSSJ) (콘서트는 금요일에 시작되어 일요일까지 계속된다.)
- c. 고소. Kóždy ma prawo, w drunich krajach pŕed plesćéhanjom azyl pytać a wužiwać. (GPH) (모든 사람은 박해의 상황에서 다른 나라에서 피난처를 모색하고 그것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 d. 저소. Wóna jo z wóza wopadnuła a sebje knyku zlamała. (GDP) (그녀는 마차에서 떨어져서 목을 깨끗했다.)

등위 접속사 a가 연결 기능을 거의 하지 않는 그 밖의 다른 슬라브어에서는 두 명제 간 대조나 역접관계를 함축하지 않는 순수한 시간적 연

22) (27)에서 카슈비아어의 해당 예문은 수집하지 못했지만, 카슈비아어 접속사 a가 순접 접속사로 연결 기능을 수행하므로, 그것의 파생 기능인 연속 기능을 수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23) 하지만 시간적 선후관계와 원인-결과와 인과관계는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예를 들어, 체코어 예문 (v)의 접속사 a는 두 사건의 선후관계를 지시함과 동시에 인과관계 또한 표현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두 기능을 따로 구별하지 않는다.

(v) 체. Loni nešťastně upadla, a nemůže teď chodit. (SSJČ) (그녀는 불행하게도 작년엔 쓰러져서, 지금은 걷지 못한다.)

속성이나 인과성을 접속사 a 단독으로는 거의 표현하지 않는다. 이들 슬라브어에서 접속사 a는 연속성을 나타내는 다른 단어들과 결합된 형태로만 사건의 연속성을 표현할 수 있다.

- (28) a. 러. Мы отдохнём здесь несколько минут, a потом пойдём.
(우리는 여기에서 잠깐 쉬고 나서 출발할 것이다.)
- b. 폴. Policji tłumaczył się, że wypił jedynie kieliszek koniaku a potem sączył już tylko... syrop na gardło. (SJP) (그는 단지 코냑 한잔을 마셨고, 그리고 나서 단지 시럽만 목구멍에 넣어 맛봤다고 경찰에게 설명했다.)
- c. 세크보몬. Danas ću roditelje obavestiti telefonom, a posle ću napisati pismo. (Mrazović 2009:419) (오늘 나는 부모님에게 전화로 알릴 거고, 그리고 나서 편지를 쓸 것이다.)
- d. 불. Очите му .. хлътнаха ужасно, .. вехтите рани по бузата му посиняха, a после потъмняха. (РБЕ) (그의 눈은 끔찍하게 푼 들어가 있었다...뺨 위의 오래된 상처는 파랗게 되었고, 나중에는 더 진한 색이 되었다.)

체코어와 슬로바키아어에서도 각각 a pak, a potom과 같은 결합적 형태로 시간적 연속관계를 좀 더 명확히 할 수 있지만, 이들 언어에서는 접속사 a 만으로도 연속관계를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편 인과관계의 경우 서슬라브어에서는 (29)와 같이 접속사 a 만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보다 명료하게 인과관계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접속사 a가 단독으로 사용되기보다 (30)과 같이 체코어 a proto, a tedy, a tudíž, 슬로바키아어 a preto, a teda, a tak 등 주로 접속사 a 뒤에 인과관계를 명시하는 다른 부사나 접속사가 덧붙은 형태로 사용된다.

- (29) a. 체. Neplatili úroky, a prodali jim chalupu. (SSJČ) (그들은 이자를 지불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들에게 오두막을 팔았다.)
- b. 슬박. Bol to sused, a už tak šeci ľudé prišli to maso kúpit.

(SSSJ) (그는 이웃이었고, 그래서 벌써 몇몇 사람들은 그 고기를 사러 왔다.)

(30) a. 체. Má rád hory, a proto se učí lyžovat. (SSJČ) (그녀는 산을 좋아하고, 그래서 스키를 배운다.)

b. 슬박. Radi cestovali, a tak celý rok šetrili. (SSSJ) (그들은 여행을 하고 싶었고, 그래서 일 년 내내 절약했다.)

즉, 순접 접속사의 가장 기본적인 연결 기능과 그것의 파생 기능인 사건의 연속성을 독립적으로 표현하는 체코어, 슬로바키아어 접속사 a 도 사건들 사이의 인과성을 표현하는 단계까지 충분히 문법화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이유 때문인지, 슬로바키아어와 문어체 체코어에서는 특정 대상의 존재에 대한 놀라움과 의외성을 표현하는 유표적 연결 접속사 i가 인과관계를 표현할 수 있다.

(31) a. 체. Začínalo pršet, i šel rychle domů. (SSJČ)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그는 빨리 집으로 갔다.)

b. 슬박. Svetlu do kuchyne preniknúť prekážali schody vedúce na poschodie, i bolo v nej šero. (SSSJ) (1층으로 가는 계단이 부엌 쪽 전등을 가로막고 있어서 부엌은 어두웠다.)

한편, 다른 대부분의 슬라브어에서는 대체로 접속사 a 단독으로 인과관계를 표현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러시아어 (a) поэтому, (a) потому, 폴란드어 (a) więc, 불가리아어 (a) затова, 세-크-보-몬어 (a) zato와 같이 다른 단어와 결합된 형태로만 인과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러한 표현들에서 a는 부차적이라 거의 생략된다.

이와 같이 연속성 및 인과성을 표현하는 기능은 슬라브어 접속사 a에서 비교적 덜 발달했다. 접속사 a의 일차적 기능이 단어나 구의 단순한

연결인, 대부분의 현대 서슬라브어에서는 접속사 a 단독으로 시간적 연속관계를 표현할 수 있지만, 적어도 체코어와 슬로바키아어에서 인과관계를 표현할 때에는 인과성을 명시하는 다른 표현들과 결합하는 경향이 강하다. 서로 다른 것을 병치하는 슬라브어 접속사 a의 대조 기능이 역접 기능으로 먼저 발전하여, 그와 반의관계라고 할 수 있는 연속 및 인과관계 표현 기능은 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6. 이접의 a

몇몇 남슬라브어, 즉 세-크-보-몬어, 불가리아어, 마케도니아어에서는 접속사 a가 이접 접속사(disjunctive conjunction)로 기능하기도 한다²⁴⁾. 이때 접속사 a는 해당 단어 앞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불가리아어 사전(РБЕ)에서는 반복되는 접속사 각각에 강세가 온다고 설명하기도 하는데, 다른 슬라브어의 반복되는 상관적 접속사(correlative conjunction)에도 보통 접속사 각각에 강세가 오기 때문에 세-크-보-몬어, 마케도니아어 이접 접속사 a도 강세를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 (32) a. 세크보몬. A ti, a on, meni je svejedno, neko to mora uraditi.
(Mrazović 2009:425) (네가 되었든 그가 되었든,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 누군가는 그걸 해야 해.)
- b. 불. Á внезапен пожар да избухне, á ноцем пушка да гръмне, á в тъмнина някой да извика изотзад „дръжете го!“
— .. , клетото сърце на Мойше би изстинало моментално.
(РБЕ) (갑자기 불이 나든지, 밤에 총이 발사되든지, 어둠

24) 나머지 남슬라브어인 슬로베니아어에서는 인터넷 검색에 제한된 언어자료의 접근 가능성 때문에 접속사 a의 이접 기능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것이 해당 언어에서 a가 이접 접속사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다른 남슬라브어와 달리 슬로베니아어에서 접속사 a는 문어체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접 접속사 기능이 발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속에서 누군가 “꼼짝 마”라고 말하든지, 모이세의 가련한
심장은 즉시 차가워졌을 것이다.)

- c. 마. *А удолу, а угоре, исто ми се фаќа.* (PMJ)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나에게는 똑같다.)

영어의 상관접속사 both A and B, either A or B, neither A nor B 등에서 A와 B 앞에 놓이는 접속사의 형태가 상이한 것과 달리, 대부분의 슬라브어에서 *i*나 *ni*가 연결 단어 앞에 반복되면서 ‘A와 B 둘 다’ 또는 ‘A도 B도 아니다’와 같은 의미를 표현한다. 슬라브어 이접접속사 *ili* (러, 마, 불, 세크보몬), *albo* (폴), *alebo* (슬박), *abo* (벨, 우, 저소, 카), *ali* (슬벤)도 복수의 단어들 앞에 반복되어 이접 관계를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다. 따라서 (32)와 같이 남슬라브어에서 접속사 *a*가 반복되며 이접 의미를 표현하는 것은 슬라브어에서 특별한 일이 아니다.

기본적 기능이 연속이나 역접인 접속사가 연결하는 등위어구들이 의미적으로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게 되고, 많은 경우 접속사 뒤에 나오는 등위절이 화용론적으로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과 달리, 기본적으로 대조 접속사인 *a*의 경우 독립적 문장에서 그것이 연결하는 두 등위절이 서로 독립적이다²⁵⁾. 이에 따라 슬라브어 대조 접속사 *a*는 여러 선택지 중에 어느 것인지 아직 정해지지 않아, 잠정적으로 모두 동등한 중요성을 가진 어구들을 연결하는 이접 접속사로까지 발달할 수 있었으리라 추정된다. 남슬라브어 접속사 *a*와 앞 단락에서 열거한 폴란드어 *albo*, 슬로바키아어 *alebo*, 벨라루스어, 우크라이나어, 카슈비아어, 저소르비아어 *abo*, 슬로베니아어 *ali* 등이 반복되는 상관적 슬라브어 이접

25) 물론 좀 더 큰 맥락에서 본다면, 러시아어 접속사 *a*의 경우 새로운 주제를 시작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접속사 *a* 앞과 뒤의 등위어구가 다른 가치를 가지고, 모든 발화들이 서로 연관성을 갖는 실제 담화에서는 그 두 등위어구를 바꾸기 쉽지 않다. 하지만 문장 단위로 보았을 때, 러시아어 역접 *A но B*, 연속의 *A и B*에서 A와 B의 순서를 바꿀 수 없는 것과 달리, *A а B*에서는 A와 B의 순서를 바꾸어도 무방하다 (정정원 · 류진경 2018:82-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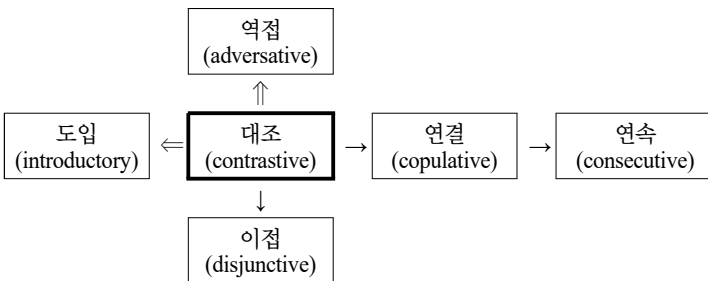
접속사 이외에, 단독으로 쓰이는 체코어 *aneb(o)*, 고소르비아어 *abo*, 러시아어 옛 이접접속사 *али, аль*도 음운 *a*로 시작하는데, 이렇게 대부분의 슬라브어에 음운 *a*로 시작하는 이접 접속사가 존재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Ⅲ. 맺는말 : 슬라브어 접속사 a의 특수성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모든 슬라브어에는 접속사 *a*가 존재하고, 그것은 대조, 도입, 역접, 연결, 연속, 이접 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대조, 도입, 역접의 기능은 대부분의 슬라브어에서 발견되고, 연결, 연속의 기능은 서슬라브어에서, 이접 기능은 남슬라브어에서 발견된다.

이러한 슬라브어 접속사 *a* 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33)



거의 모든 슬라브어 접속사 *a*에서 발견되는, 서로 다른 독립적인 개체와 발화를 병치하는 ‘대조’가 가장 기본적 기능이라 할 수 있고, 거기에서 잠재 발화와 실제 발화, 또는 기존 발화주제와 새 발화주제라는 서로 다른 층위의 발화들을 연결하는 ‘도입’, 시간적, 인지적으로 인접하여 공존하는 것이 의외적인 독립적 두 명제를 연결하는 ‘역접’, 그 실

현가능성이 독립적인 구성성분들 사이의 배타적 관계를 표현하는 ‘이 접’ 기능이 파생했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연결 기능 접속사 *i*의 의미가 좀 더 정교화되고 사용범위가 축소되면서 접속사 *a*에게로 전이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서슬라브어 접속사 *a*의 ‘연결’ 기능, 그리고 시간적으로 인접한 것들을 결합하는 연결 기능에서 파생된 또 다른 순접 기능인 ‘연속’ 기능이 있다. ‘연결’ 기능은 동일한 것과 상이한 것을 모두 결합하는 반면, ‘대조’는 서로 상이한 대상들을 병치시키므로, 그 기능 자체의 복잡성의 정도로 보았을 때 ‘대조’ 기능보다 ‘연결’ 기능이 더 기본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슬라브어 접속사 *a* 공통의 ‘대조’가 서슬라브어에만 특징적인 ‘연결’ 기능에 역사적으로 선행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대조’에서 ‘연결’ 쪽으로 화살표를 표시했다. 또한 여러 슬라브어에서 좀 더 광범위하게 관찰되는 ‘도입’, ‘역접’ 기능과 ‘대조’ 기능 사이는 좀 더 굵은 화살표로, 지역적으로 나타나는 다른 기능과의 관계는 좀 더 가는 화살표로 표시했다.

이때 ‘대조’를 슬라브어 접속사 *a*의 기본 기능으로 보는 이유는 첫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것이 거의 모든 슬라브어에서 나타나며 개별 슬라브어 접속사 *a* 들이 모두 공유하는 기능이고, 둘째, 다른 기능들과 달리 ‘대조’가 다른 슬라브어 접속사로 대체할 수 없는 슬라브어 접속사 *a*에만 특화된 변별적 기능이며, 셋째, 거의 모든 슬라브어 접속사 *a*에 나타나는 슬라브어 특유의 역접과 도입 등의 용법들이 서로 다른 독립적 언어 단위들의 병치라는 슬라브어 *a*의 대조 기능과 어느 정도 상관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슬라브어 접속사 *a*의 대조 기능에 대한 관점은 러시아어 접속사 *a*의 기본 기능을 대조로 본 다른 연구(정정원·류진경 2018)의 주장과도 맥을 같이 한다.

한편 러시아어 접속사 *a*의 특수성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지적했던 부분 중에 그 기능적 다양성은 러시아어 이외의 다른 슬라브어 접속사 *a*에서도 발견되는 특징이다. 그 범슬라브어적 공통성 때문에 원슬라브

어에서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슬라브어 접속사 a의 사용이 오랜 시간 지속되면서, 원래의 대조 기능이 강화됨과 동시에 새로운 기능들을 파생시키면서 여러 기능으로 분화된 것이다.

러시아어 접속사 a의 또 다른 특수성인 사건들 사이 내적 인과관계의 붕괴를 상정하지 않는 역접의 표현도 러시아어 이외의 다른 슬라브어 접속사 a에서 발견되는 특징이다. 이것은 슬라브어 접속사 a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대조가 역접으로 발전하면서 생긴 특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대조는 서로 상이한 것들을 병치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역접으로 발전하기 쉽지만, 그 내적 상관관계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병치할 수 있는 대조의 속성이 슬라브어 접속사 a 특유의 역접 의미를 만들어 낸 것이다. 이때 밀접한 내적 상관관계를 갖지 않은 명제들의 역접은 화자 개인의 관점을 반영하며 그 의외성의 판단 기준이 다소 주관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러시아어 접속사 a의 또 다른 특징은 매우 잦은 사용 빈도인데, 이 또한 그 사용이 문어체에 한정된 슬로베니아어를 제외한 대부분의 슬라브어 접속사 a에서 공통되는 특징이다. 이러한 잦은 사용의 이유는 첫째, 슬라브어 접속사 a의 기능 자체가 다양하며, 둘째, 구체적 내적 관계를 특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다른 것을 병치할 수 있음이 사용에 보다 많은 자유를 부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러시아어 접속사 a의 특수성은 대체로 여러 슬라브어 접속사 a의 특수성과도 맥을 같이 한다. 또한 러시아어 접속사 a에서는 구현되지 않는 별도의 기능들이 다른 슬라브어 접속사 a로 표현되기도 한다.

따라서 다른 슬라브어 접속사 a와 구별되는 러시아어 접속사 a만의 특수한 사용이 발견되지 않는 한, 등위 접속사 a가 매우 러시아어적인 접속사라는 주장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개별 슬라브어 접속사 a 간의 보다 구체적 차이에 대한 좀 더 정교한 비교를 위해서 개별 슬라브어 내의 해당 접속사에 대한 좀 더 다양한 의미, 화용, 담화 차원의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 참고문헌

- 정정원·류진경 (2018), 「담화세계 간 경계로서 러시아어 접속사 a₁, 『러시아학』 제16호, 충북대학교 러시아알타이지역연구소, 69-103.
- Arsenijević, Boban(2011), “Serbo-Croatian coordinative conjunctions at the syntax-semantics interface”, *The Linguistic Review* 28(2), 175-206.
- Barić, E., M. Lončarić, D. Malić, S. Pavešić, M. Peti, V. Zečević, M. Znika(2005), *Hrvatska gramatika*, Zagreb: Školska knjiga.
- Bąk, Piotr(1977/2010), *Gramatyka języka polskiego*, Warszawa: Wiedza powszechna.
- Bednarczyk, Leszek(1967), *Polskie spójniki parataktyczne*, Wrocław: Ossolineum.
- Blakemore, D.(1989), “Denial and contrast: a relevance theoretic account of *but*,” *Linguistics & Philosophy* Vol.12, 12-37.
- Blakemore, D.(2000), “Indicators and procedures: *nevertheless* and *but*,” *Journal of Linguistics* Vol.36(3), 463-486.
- Cichońska, Maria(2015), “Još o ‘uhodanim brazdama’ iliti slavenskim veznicima,” *Fluminensia* 27/2, 175–190.
- Fielder, Grace(2008), “Bulgarian adversative connectives: Conjunctions or discourse markers?,” *Crosslinguistic Studies of Clause Combining: The multifunctionality of conjunctions*, ed. by Ritva Laury,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79-97.
- Grice, H. P.(1975), “Logic and Conversation,” *Syntax and Semantics*, Vol. 3. Ed. by Cole, P. & Morgan, J. L., New York: Academic Press, 41-58.
- Huang, Yan(2007), *Pragmatics*, Oxford Univ. Press.
- Lakoff, R.(1971), “Ifs, and's and but's about conjunction,” *Studies in Linguistic Semantics*, ed. by Charles J. Fillmore & D. Terence

- Langendoen, Irvington, 114-149.
- Malchukov, Andrej(2004), "Towards a Semantic Typology of Adversative and Contrast Marking," *Journal of Semantics* 21(2), 177-198.
- Mey, Jacob L.(2001), *Pragmatics: An Introduction*, Oxford: Blackwell.
- Mrazović, Pavica(2009), *Gramatika srpskog jezika za strance*, Novi Sad: Izdavačka knjižarnica Zorana Stojanovića.
- Průruční mluvnice češtiny*(1995), ed. by Marek Nekula, Zdenka Rusínová, Miroslav Grepl & Petr Karlík, Praha: Nakladatelství Lidové noviny.
- Popović, Maja & Sheila Castilho(2019), "Are ambiguous conjunctions problematic for machine translation?," *Proceedings of Recent Advances in Natural Language Processing*, Varna, Bulgaria, Sep 2-4, 2019, 959-966.
- Přikrylová, Katrin & Vladislav Kuboň, Kateřina Veselovská(2016), "Logical vs. Natural Language Conjunctions in Czech: A Comparative Study," *ITAT* 2016, 68-73.
- Rothstein, Robert. A.(1993/2002), "Polish", *The Slavonic Languages*, ed. by B. Comrie & G. Corbett, London: Routledge, 686-759.
- Short, David(1993/2002a), "Czech," *The Slavonic Languages*, ed. by B. Comrie & G. Corbett, London: Routledge, 455-532.
- Short, David(1993/2002b), "Slovak," *The Slavonic Languages*, ed. by B. Comrie & G. Corbett, London: Routledge, 533-592.
- Stone, Gerald(1993/2002), "Cassubian," *The Slavonic Languages*, ed. by B. Comrie & G. Corbett, London: Routledge, 759-794.
- Yokoyama, O. T.(1981), "On sentence-coordination in Russian: a functional approach," *Papers from the Seventeenth Regional Meeting. Linguistic Society*, Chicago, 431-439.
- Крейдли́н, Г. Е. & Падучева, Е. В.(1974a), "Значение и синтаксические свойства союза а," *HTH*, сер.2, № 9, 31-37.

- Крейдлин, Г. Е. & Падучева, Е. В.(1974b),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ассоциативных связей и актуального членения в предложениях с союзом *a*,” *НТИ*, сер.2 №10, 32-37.
- Мичева, Ваня(2013), *Паратактични отношения в историята на българския книжовен език*, София:Издательство Дио Мира.
- Николаева, Т. М.(1997), “Сочинительные союзы *a*, *no*, *и*: история, сходства и различия,” *Славянские сочинительные союзы*, М.: Издательство РАН, 3-24.
- Падучева, Е. В.(1997), “Эгоцентрическая семантика союза *A* и *НО*,” *Славянские сочинительные союзы*, М.: Издательство РАН, 36-47.
- Санников, В. З.(1986), “Значение союза *но*: нарушение «нормального» продолжения вещей,” *Изв. АН СССР*, 433-444.
- Урысон, Е. В.(2004), “Союзы *A* и *НО* и фигура говорящего,” *Вопросы языкознания* № 6, 64-83.
- Фужерон, И.(1997), “О некоторых особенностях русских сочинительных союзов. Союз *И* и *A*, союзы *A* и *НО*,” *Славянские сочинительные союзы*. М.: Издательство РАН, 25-35.
- Цонев, Р.(2013), “Противопоставителни съюзи в българската разговорна реч,” *Годишник на филологическия факултет*, Т. 11, Благоевград: Унив. изд. Н. Рилски, 15-31.

슬라브어 사전

CD(카): *Cassubia-dictionary*

<http://www.cassubia-dictionary.com/index.php> (검색일 2021.7.29)

ESSČ(고대 체코어): *Elektronický slovník staré češtiny*

<https://vokabular.ujc.cas.cz/hledani.aspx> (검색일 2021.7.29)

GDP(폴-저소): *Glosbe słownik dolnołużycko-polski*

<https://pl.glosbe.com/dsb/pl> (검색일 2021.7.29)

- GPH(폴-고소): *Glosbe słownik polsko-górnołużycki*
<https://pl.glosbe.com/pl/hsb> (검색일 2021.7.29)
- GHD(고소-저소) <https://glosbe.com/hsb/dsb> (검색일 2021. 7.29)
- SJP(폴): *Słownik języka polskiego PWN*
<https://sjp.pwn.pl/> (검색일 2021.7.29)
- SSJČ(체): *Slovník spisovného jazyka českého*
<https://ssjc.ujc.cas.cz/> (검색일 2021.7.29)
- SSKJ(슬벤): *Slovar slovenskega knjižnega jezika*
<https://fran.si/133> (검색일 2021.7.29)
- SSSJ(슬박): *Slovník súčasného slovenského jazyka*
<https://slovník.juls.savba.sk/>(검색일 2021.7.29)
- БРС(벨-러): *Беларуска-расейскі слоўнік (Крапіва)*
<http://www.slounik.org/krapivabr/> (검색일 2021.7.29)
- РБЕ(불): *Речник на българския език*
<https://ibl.bas.bg/rbe/> (검색일 2021.7.29)
- PMJ(마): *Речник на македонскиот јазик*
<https://makedonski.gov.mk/corpus/s?q=%D0%B0> (검색일 2021.7.29)
- СУМ(우): *Словника української мови*
<https://slovyk.ua/index.php> (검색일 2021.7.29)

❖ ABSTRACT

The Functions of the Coordinate Conjunction *a* in Modern Slavic Languages

Chung, Jungwon
Yonsei University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functions of the Slavic coordinate conjunction *a*. All modern Slavic national and regional languages have a conjunction that is pronounced as /a/ which fulfills functions, such as contrastive, introductory, adversative (in a narrow sense), copulative, consecutive, and disjunctive functions.

The contrastive function occurring among semantically related or unrelated things juxtaposed by the Slavic conjunction *a* is the most basic and prominent function of this conjunction, and all the modern Slavic conjunctions pronounced as /a/ can represent a contrastive relation between coordinates.

The Slavic *a* also serves as an introductory conjunction appearing at the beginning of an utterance without a related precedent utterance or context, and as an adversative conjunction connecting incompatible events. These two functions must have been derived from its contrastive function since the introductory conjunction juxtaposes a new utterance to an unuttered inner speech or an unrelated precedent discourse, and the Slavic adversative *a* juxtaposes propositions that do not usually co-occur, not implicating a breaking of a usual chain of causation.

In the West Slavic languages, except Polish, the conjunction *a* is,

above all, a copulative conjunction and can also serve as a consecutive conjunction. On the other hand, some South Slavic languages have a correlative disjunctive conjunction *a*, repeatedly added at the beginning of each coordinate.

Many Russian linguists suggested that the Russian conjunction *a* is the most typical Russian conjunction that cannot be translated into other languages. However, the Russian conjunction *a* shares its main functions and pragmatic peculiarities with other Slavic equivalents, and the corresponding conjunctions in other Slavic languages also have their own idiosyncratic functions. Therefore, the conjunction *a* should be considered a characteristic Slavic conjunction rather than a peculiar Russian conjunction.

Key Words : Slavic, Coordinate Conjunction, *a*, Contrastive, Introductory, Adversative, Copulative, Consecutive, Disjunctive

■ 논문접수일 : 2022. 01. 11

■ 심사완료일 : 2022. 02. 02

■ 게재확정일 : 2022. 02. 03